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 민형배

6·3 지방선거 D-49

민주당 경선 결선투표 결과

초박빙 대혼전 ‘끝장승부’서 승리
탄탄한 조직력 기반 대세론 유지
유권자들 ‘변화·세대 교체’ 선택
金, 辛·姜과 ‘빅텐트연대’ 무위로
초대 통합특별시장 9부 능선 넘어
閱 “전남광주 시민주권정부 실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결선투표에서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울)이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를 꺾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2·3·4면 초박빙 대혼전 양상으로 전개된 ‘끝장승부’에서 민 후보가 재선 도지사인 김영록 후보를 꺾으면서 유권자들은 안정감 있는 행정능력보다 ‘변화’와 ‘세대 교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결선투표 결과, 기호 1번 민형배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결선투표는 국민참여경선(관리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후보별 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경선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첫 광역 시·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선 승리 환호 14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결선투표 결과, 최종 후보로 확정된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울)이 경선캠프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초대 시장 후보를 가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결선투표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양자 대결로 압축된 뒤 판세를 예측하기 힘든 초집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민 후보의 승리로 김영록 후보의 3선 도전은 무산됐다. 김영록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과 잇따라 연대하며 이른바 ‘초대형 빅텐트’ 구축에 성공했지

만 민 후보의 대세론에 밀려 무위로 돌아갔다. 김 후보는 조직력과 외연을 동시에 강화하며 막판 역전승을 노렸지만 고배를 마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의 빅텐트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연대 후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민형배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세론을 형성하며 판세를 주도했다. 바다 민심을 공략하며 지지 기반을 공고히 다진 데 이어, 결선에서도 핵심 지지층 결집을 이끌

어내며 김 후보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민 후보는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출마하지 않았다. 이후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광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개월여의 경선 과정에서 민 후보는 ‘변화’와 ‘세대 교체’를 앞세워 전남·광주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 지방행정과 중앙정치를 두루 경험한 점을 강

점으로 내세워 국정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 시대의 조기 안정과 갈등 조정의 책임자임을 부각하기도 했다. 민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시민주권 정부’ 수립을 제시했다. 행정 의사결정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전환해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전남·광주를 ‘신성장 특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5대 비전으로 성장통합, 균형발전,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제시했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인 지역 내 특성상 민 후보의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 가능성은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게 중론이다. 민형배 후보는 “이번 결과는 정제된 전남·광주를 깨우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라는 주권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그 뜻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민 후보는 “함께 경쟁을 펼쳐준 김영록 후보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그려온 강기정 후보의 추진력, 농정 철학과 전문성을 보여준 신정훈 후보의 진심을 기억한다. 현장과 제도를 모두 꿰뚫고 있는 주철현 후보의 지혜와 청년의 패기로 젊은 정치를 일깨워준 정준호 후보의 기개 또한 전남·광주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 후보는 “전남·광주 대도약을 위해 모두의 손을 맞잡고 함께 걷고 싶다”며 “전남광주 시민주권정부를 확실히 세우겠다. 특별시민들이 맡겨 준 책임을 끝까지 제대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안태욱·이정현 후보(경선예정), 진보당 이종욱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등이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본은진 기자

李대통령 “여수섬박람회, 중앙정부도 지원하라”

국무회의서 빈틈없는 점검·지원 지시
金총리 내일 여수行 준비 상황 점검
조직위 “환영...성공 개최 철저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두고 “인프라 조성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말미에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5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6월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을 감안하면 대회 준비를 전적으로 지방정부에만 맡겨두기가 만만치 않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오는 9월 개막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준비 상황이 미흡해 자칫 ‘제2의 쟁버리’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여수를

찾아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김 총리는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행안부 차관, 여수시장 권한대행 등과 함께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 그랜드홀과 개도(부행시장) 등에서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이날 환영과 감사 입장을 표한 뒤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박람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섬박람회를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치르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전남도, 여수시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다 세밀히 준비할 방침이다.

현재 행사장 조성 공사는 당초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완료 예정이다. 랜드마크인 주제관을 비롯한 8개 전시관의 내부 콘텐츠는 7월까지 설치해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선보인다. 바가지 요금 근절을 비롯한 관광객 수용 태세도 재정립하고 있다. 경찰·안전·음식·숙박·교통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절하고 청결한 섬박람회 손님을 위한 대대적인 범시민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27개 국가, 3개 국제기구의 참가가 확정됐으며 총 300만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김중기 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섬의 가치를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세계와 공유하

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섬박람회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9월5일부터 11월1일까지 여수 돌산 진도지구, 개도·금도 일원,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Today

| | |
|-----------------------|-----|
| 전태일 열사 서거일 ‘국가기념일’ 추진 | 6면 |
| ‘반도체 주 다시 외국인 자금 유입’ | 12면 |
| 호랑이 DNA 바꾼 ‘주루의 힘’ | 16면 |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 캠페인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승용차 5부제에 동참해주세요!

1·6
월

2·7
화

3·8
수

4·9
목

5·0
금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

출퇴근시 카를 활성화하기

유연근무 활성화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